

ECONOMY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여수국가산단 ‘화약고’ 불명에 이유있네

신협, 자동이체 고객 대상
순금 등 경품 증정 이벤트

신협중앙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계좌이동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손쉽게 변경하는 서비스로 개별적인 자동이체 해지 및 신규 등록과는 별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벤트 대상은 자동납부(체크카드 제외) 항목에 대한 서비스 신청자이며, 자동송금(신협계좌간·타행·납부자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된다.

신협은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자를 위해 2종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신협 영업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월별 3명을 추첨해 경품 추첨 기간까지 총 6명을 선정해 순금 1돈을 증정한다.

아울러 전체 신청자 중 100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신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11월 중 경품 추첨 시까지 자동납부 상태를 유지한 고객에 한해 추첨 대상이 된다. 또한 계좌이동서비스는 이용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신청이 실패할 수 있으며, 신청 성공 건수에 비례해 추첨 기회가 부여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최근 5년간 폭발 등 중대사고 11건 발생
광양·대불산단도 빈발...“점점 고도화를”

여수국가산업단지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공개됐다.

최근 5년간 폭발 등 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내 국가산업단지 중 울산미포, 경남 창원외 이어 세 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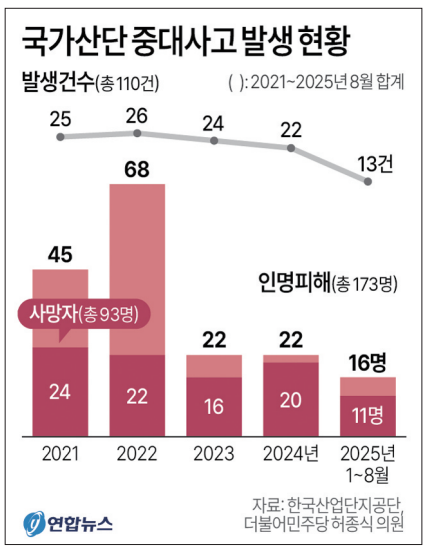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중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국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11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1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93명은 숨졌다. 재산피해액은

118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산단별 중대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중대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여수산단에서는 2021년 5건(산업재해 3건, 가스·화학물질 1건, 폭발 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모두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재산피해액은 21억5000만원이었다.

2022년에는 4건(산업재해 1건, 가스·화학물질 2건, 폭발 1건)이 발생,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5명이 숨졌다. 당시 재산피해액은 18억원이다. 2023



년에는 가스·화학물질 중대사고만 2건 발생, 3명이 부상했다.

해당 기간 동안 여수산단 내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건수는 울산미포산단(18건), 경남 창원산단(14건)에 이어 가

장 많은 수치다.

지역 내 또 다른 산단들 역시 사고가 잇따랐다.

2021년 광양산단에서는 1건(사망 1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건의 산업재해로 2명이 숨졌다. 같은 해 영암 대불산단에서도 1건(사망 1명)의 산업재해가 확인됐다.

2023년에는 광양산단에서 산업재해 1건(사망 1명), 대불산단에서 2건(사망 2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024년에는 광양산단에서만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 이들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8월 기준 광양산단에서는 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고, 대불산단에서는 3건의 산업재해로 이들 모두 숨졌다.

5월 대불산단에서 부품 운반 중이던 지

게차에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7월 광양산단에서는 크레인으로 공장 내 집진배관(덕트) 철거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추락했다. 8월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 누수로 인한 보수 중 도급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 1명이 10m 아래로 추락, 숨졌다.

허중식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이어진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산단 관리기관은 화학사고 뿐 아니라 추락·협착같은 기본 안전까지 관리체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산업재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점검체계 고도화와 안전투자를 확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진한 풍미 치즈케이크 맛보세요” 광주신세계는 1일 본관 지하 1층에서 서울 연남동에서 시작해 대전신세계 등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했던 치즈케이크 전문점 ‘치플레’ 팝업을 열고 고객맞이에 나섰다. 대표 메뉴는 치즈와 바닐라빈이 어우러진 치플레, 다크 초콜릿을 넣은 쇼콜레, 일본 교토 우지 말차를 넣은 딤포레, 겔라틴을 구운 브릴레 등이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기본 치플레에 다른 맛을 섞어 구매할 수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AI활용 교육 ‘눈에 띄네’

업스킬링 세미나 호응
실무과정 한차례 추가

인공지능 전환(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AI 교육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등 호응이 높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디자이너 AI 역량 강화, 디자인 전문기업의 AI 지원을 위한 ‘AI 업스킬링(Upskilling)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가 시행하는 ‘2025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디자인 분야의 AI 활용·확산 등 AI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디자이너 및 제조기업 재직자, 대학(원)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150여명이 몰렸다. 재직 디자이너 20명을 대상으로 계획한 AI 업스킬링(Upskilling) 실무과정도 40여명이 사전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고성찬 프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디자이너 AI 역량 강화, 디자인 전문기업의 AI 지원을 위한 ‘AI 업스킬링(Upskilling)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디자이너)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사례’에 이어 ccMoc 한광수 대표의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 지식재산권 및 법률 교육’으로 진행됐다.

1~2회차 교육에 이어 오는 6일부터 ㈜데일리프토프트 최소영 대표, ㈜오에이오 손정현 대표 등과 함께 AI 기반 리서치, 생성형 AI 툴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형 실무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 인원이 초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명 규모의 실무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출석 및 프로젝트 결과물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5명 내외의 우수교육생을 선발, 10월께 해외 연수도 지원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디자인은 전 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 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급변하는 AI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AI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대만디자인연구소

네트워크 강화...연구개발·전시행사 등 협력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국립대만디자인연구소가 디자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협을 모은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광주를 방문한 국립대만디자인연구소와 환담을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아시아 디자인 네트워크 강화, 디자인 연구개발 협력, 디자인 전시·행사 교류, 인적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광주를 방문한 국립대만디자인연구소와 환담을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NEXUS

N넥서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에이치와 IT 기술이 합쳐진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엔에이치네트웍스(주)

TEL 062-719-1080~2

연구 & 개발

통합영상관리,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패턴인식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정제 단위 및 CCTV 시스템

ES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계, 아연이 인편 용접 보조 장치

설계 & 지원

유·무선/광 전송망, 서버/네트워크, 영상관리, 보안·지능형모니터링·영상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공사, 스마트시티 설계, 광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차통신 시스템, 차량제어통신시스템